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능력은 제로이다. 그런데 주어진 일은 일당백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누구나 제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결과 역시 최선을 기울인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어진 소원과 개인 쿠대에 주인공도 아닌 카메오로 등장하는 일반 민초의 삶은 참으로 어려울게 직면하게 된다.

시골 출신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며, 명문 학교 출신도 아니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다. 힘들지 않았다는 말은 말장 거짓말이다. 어떤 일이든 주지지가 단 하나만 자신감을 가지고 해진게 변 자신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형평성과 공정성의 근체가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공평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코드 인사가 만연한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직도 이 사회는 '복은 불이 넘치는 열국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자신이 계획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나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이라는 말로 자신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등 상황에 갖는 적절한 분석과 대처만이 하나의 인생을 알차게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인확취급을 노리는 청년 세대를 바다보면서 나 자신의 20대와 30대를 떠올려 본다. 그때 나는 매일 매일 정말 많은 말



박여범

음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을 쏟아내며 결코 또 겹쳐 올릴 기 어렵다는 현실을 몸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주변의 격정을 떨기 위해 바쁘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을 엔 단에서는 꺼내놓지 않았다. 다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는 정말 명칭한 광범을 택했다. 이러한 내 생각을 지체할 것이 지남 앞서 생각해보면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시절, 게시판과 전보대에 붙어 있는 구인공고를 보고 수많은 면접과 일터를 찾아 시내 비스비를 소모하던 시절이었다. 어찌어찌하여 어렵게 잡은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일단 인성을 받아야 하고, 인성을 받아야 그래도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최선을 내뿜었다. 그런데도 가져온 결과는 항상 새로운 임무로 대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 생각했던 절망된 시절이 후회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심심함과 무료함으로 선택과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도 나는 같은 자체로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었다. 선택의 여자 친구 이야기나 가정 문제를 상담해주고 들어주면서도 말이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시절 내가 나를 옹호하고 이단적인 상념과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어쩔 지극보다

나은 삶이 내게 주어졌을까? 딱히, 그런 건과는 무지개처럼 뜬구름인 가능성이 크다. 고병권은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아는 것은 한 단에서는 꺼내놓지 않았다. 다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짊어지고 가려는 정말 명칭한 광범을 택했다. 이러한 내 생각을 지체할 것이 지남 앞서 생각해보면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시절, 게시판과 전보대에 붙어 있는 구인공고를 보고 수많은 면접과 일터를 찾아 시내 비스비를 소모하던 시절이었다. 어찌어찌하여 어렵게 잡은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일단 인성을 받아야 하고, 인성을 받아야 그래도 일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최선을 내뿜었다. 그런데도 가져온 결과는 항상 새로운 임무로 대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숨이 막히면 쉬어가면서 숨을 쉬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면 되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저하고 싶으면 주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잘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애써, 몸부림치지 마라

뭐가 그리 좋다고 사는 것이 뭐 별거라고 아등바등하다 넘어질까 두렵다

너무 잘하려고

나그네처럼 주어진 대로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담비지 말고

너무 튀지 않는 다양성으로 나의 길을 찾아 걸어가다 보면 알 수 없는 중추역이 지친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진 여운이 남는다 '박여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선행'

나에게는 내만의 길이, 너에게는 너만의 길이 있다.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비슷하지 않다. 나를 독 특할, 개성이 있다.

나름이 있다는 것의 가장 무서운 장점은 바로 자신감이다. 그런데도 그 자신감을 가르막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렇다고 멈추거나 되돌아갈 수도 없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희생이 요구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위험으로 현명하게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너무 잘하려고 애를 씀이 있다. 노력한 만큼, 따듯 흘러만 돌만 기대하면 힘들지 않다. 애쓰기 보다는 준비하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꼭, 이번이냐. 한다는 강박관념이 얼마나 우리 등에 헤트운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보자. 지친 얼굴이 새롭게 깨어나는 반성과 새로움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열등감', '지나친 기대' 등에서 자유로운 날갯짓으로 하루를 살아내자.

사설

전주 김치명가 김명옥 음식 출간

전주 음식 명가(名家)로 유명한 김명옥씨가 '전주 음식에 정을 담다'라는 240쪽 짜리 책을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대를 이어 손맛을 지켜온 음식 명인이다. 당초 부안김씨 3대 종갓집 손녀로 태어났다. 부안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농촌의 대가족 속에서 자란 그는 사람을 좋아하고 음식을 해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습관이 평생에 남아 있다.

그는 평소 옛 어른들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 집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자신의 기억력이 쇠퇴하기 전에 할머니, 엄마가 해서 드셨던 음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출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할머니와 엄마는 논대중으로 양념을 넣었지만 뛰어난 맛으로 먹는 사람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었다. 음식을 만들 때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래서 필자는 "정을 담는다."

는 말로 표현했다. 목차는 모두 10개로 나누었다. 김치, 밥과 면, 국과 탕과 조림, 전, 소와 돼지고기 음식, 나물과 무침과 볶음, 장아찌와 젓갈, 떡, 장류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특히 김치는 가지김치, 갓김치, 고구마줄기김치, 고들빼기김치, 굴김치, 갯잎김치, 마늘김치, 배추김치, 봄동김치, 양파김치, 열무김치, 오징어순대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무겉생채, 오이소박이, 흥 갖동치미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그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김재균 전 양지초등학교 교장은 '이 요리 지침서가 우리 전통음식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명옥 김치 명인은 현재 전주한옥마을 김명옥 숙박 김치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 출간을 계기로 맛과 멋의 고장에 어울리는 김치 명인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도내 재선 단체장 3선 도전 관심

오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 북지역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선 단체장들의 3선 도전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는 물론 향후 총선 구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선 연임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재선 단체장들은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들의 결단 여부에 따라 지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도내 재선 단체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일실군수 등 5명이다.

송하진 도지사의 경우 최근 3선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사석 행보를 감안할 때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관측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행보도 초

미의 관심사다. 그는 당초 도백출사표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여러 설이 나오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심민 일실군수는 3선 출마에 무게가 실린다. 정현을 시장은 현재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 텃밭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역시 3선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심민 일실군수는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3선 고지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지지자들이 출마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3선에 성공한 단체장은 문동신 군산시장, 박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이강수 교항군수, 이진식 김제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강인형 순창군수, 황속주 순창군수 등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나비새김을 아시나요?" 지인들에게 나비새김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처음 들어본다며 무엇이라고 되묻는다.

'나비새김'은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존중받는 어르신을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정신·재산적

"나비새김을 아시나요?"

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2.1%, 신체적학대 38.1%, 방임 9.0%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이 중복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대 피해 노인들은 자신이 인내하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으

로 오랜시간 동안 참고 견디지만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로 배신감, 절망, 후회, 인생의 무상함,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노인학대를 단지 남의 집안

일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국번없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열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 신고하여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영익신경철서여청과경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